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66-1호)

# 여론속의 여輿論論

기획: 2024년 설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

2024. 1. 31.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저작권 정책

---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1

## 2024년 설 모임 계획

**이번 설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68%,  
지난 해 설과 비슷하고, 지난 추석보다는 5%포인트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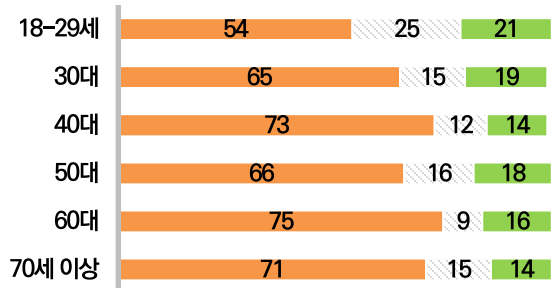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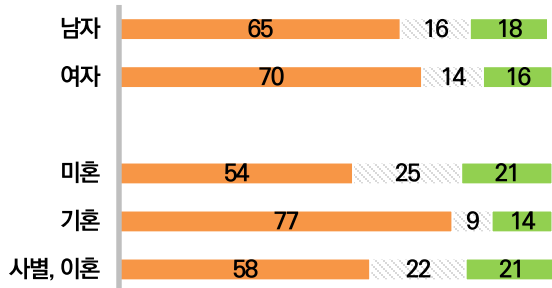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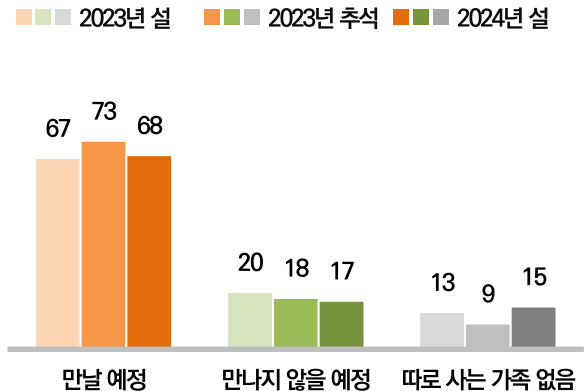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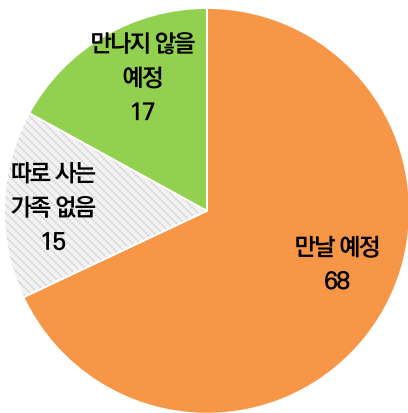
2024년 설 명절을 3주 앞둔 시점인 1월 19일 ~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 모임 및 일정 계획을 확인해 보았다. 전체의 68%가 이번 설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이라고 답했다. 따로 사는 가족이 있지만 이번 설에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은 17%, 따로 사는 가족 없다고 답한 사람은 15%이다.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인 사람은 지난 해 설(67%)과 비슷하고, 지난 해 추석 명절과 대비해서는 5%포인트 낮다.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이라는 응답이 높은 연령대는 60대(75%), 40대(73%), 70세 이상(71%) 등의 순이며, 기혼 응답자 또한 77%가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반면 미혼(54%), 18-29세(54%)에서는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난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번 설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68%, 지난 해 설과 비슷하고 지난 추석보다는 5%포인트 낮아

(단위: %)

따로 사는 가족을...



질문: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19.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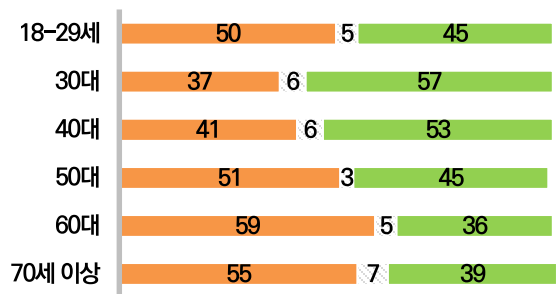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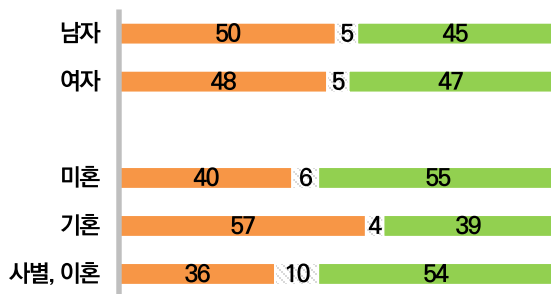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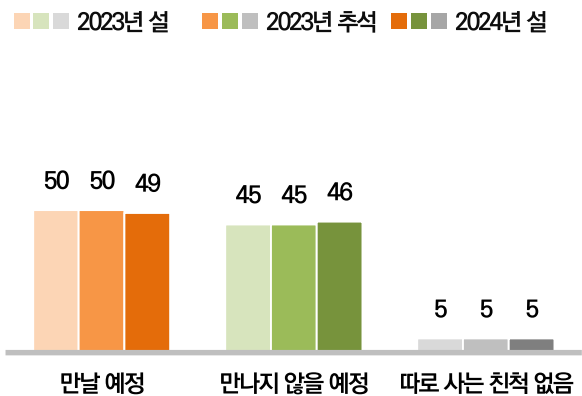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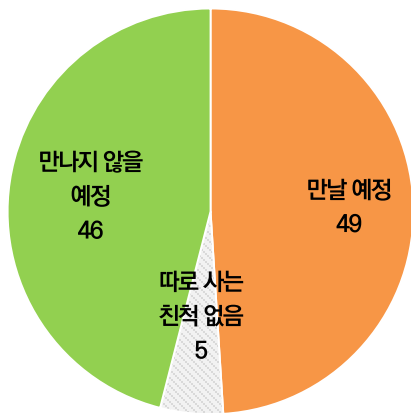
## 이번 설에 따로 사는 친척과 만날 것 49%, 지난해 설·지난 추석과 비슷

이번 설 명절에 따로 사는 친척과 만날 계획이라는 사람은 전체 49%,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은 46%이며, 따로 사는 친척이 없다는 사람은 5%이다. 따로 사는 친척과 모임을 계획하는 사람은 지난해 설(50%), 지난 추석(50%)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60대(59%), 70세 이상(55%) 등 고령층에서는 따로 사는 친척을 만날 예정이라는 사람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30대(37%)와 40대(41%)에서는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친척을 만날 계획을 하고 있다. 미혼(40%), 사별·이혼(36%)인 사람도 절반 이상이 따로 사는 친척을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이번 설에 따로 사는 친척과 만날 것 49%, 지난해 설·지난 추석과 비슷

(단위 : %)

따로 사는 친척을...



질문: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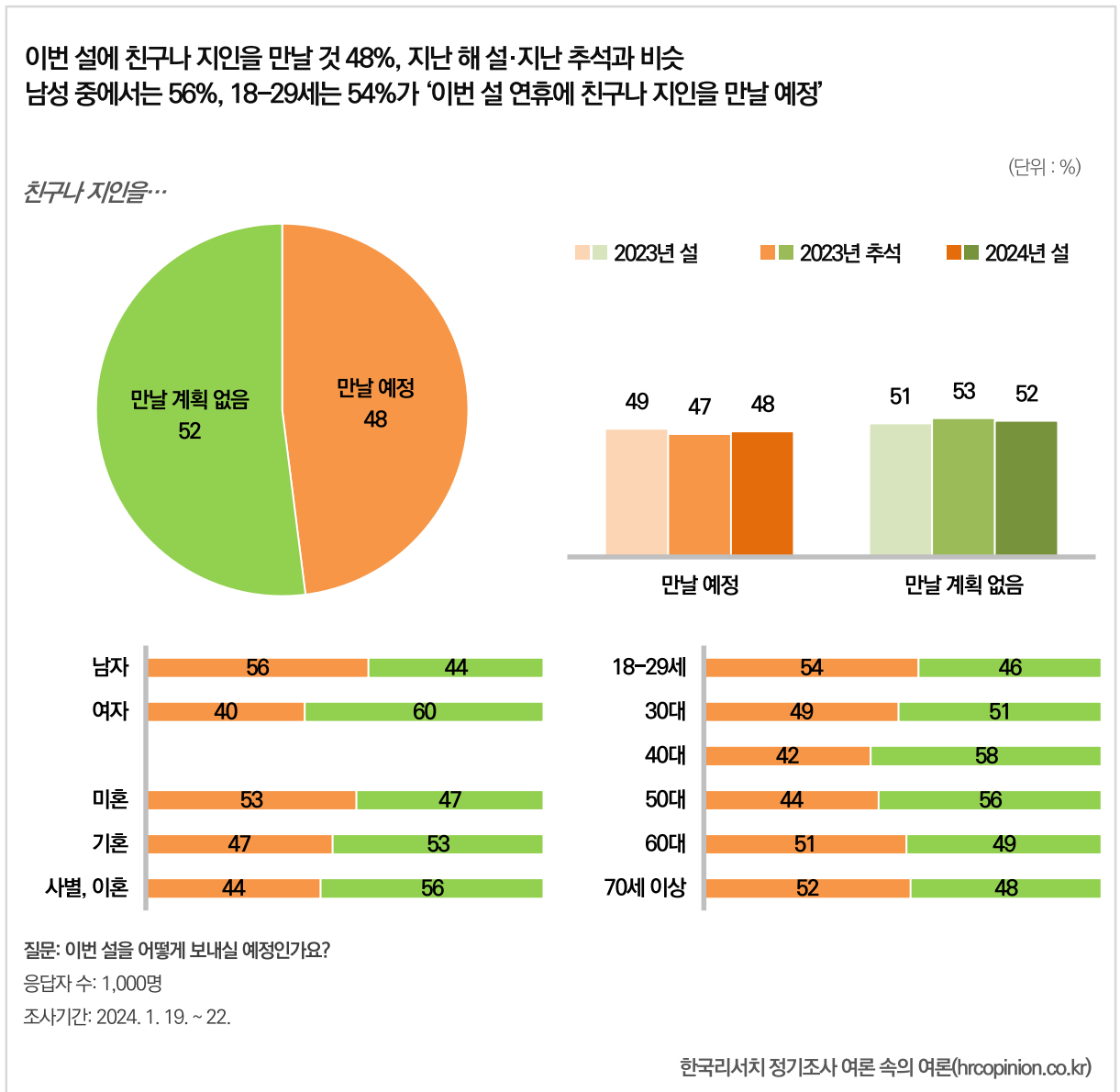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1. 19.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이번 설에 친구나 지인을 만날 것 48%, 지난 해 설·지난 추석과 비슷 남성 중에서는 56%, 18-29세는 54%가 '이번 설 연휴에 친구나 지인을 만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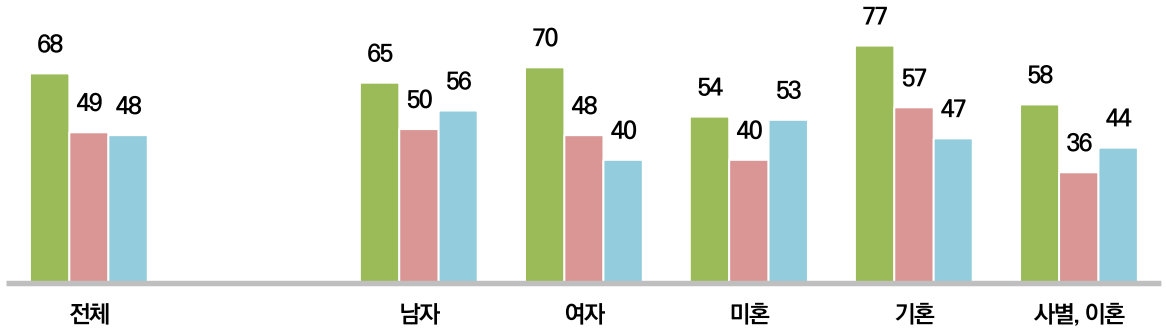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이번 설에 친구나 지인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48%, 계획이 없는 사람은 52%로 엇비슷하다. 친구나 지인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난 해 설(49%), 지난 추석(47%)과 비슷하다.

명절 기간 중 친구나 지인을 만날 예정인 사람은 남성(56%)이 여성(40%)보다 많고, 미혼남녀 중 53%가, 18-29세에서는 54%가 친구나 지인을 만날 계획이 있다. 반면 40대(42%)와 50대(44%)에서는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친구 및 지인과의 모임을 예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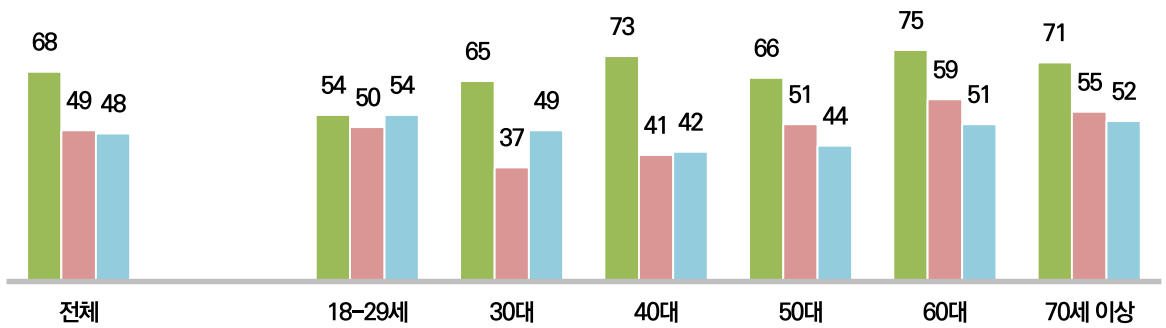


### 이번 설 명절 가족, 친척, 친구·지인과의 모임 계획

■ 따로 사는 가족 만날 예정 ■ 따로 사는 친척 만날 예정 ■ 친구·지인 만날 예정 (단위 : %)



■ 따로 사는 가족 만날 예정 ■ 따로 사는 친척 만날 예정 ■ 친구·지인 만날 예정



질문: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19.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2 여행, 차례 등 설 계획

### 이번 설에 국내나 해외여행 계획 있다, 11% 지난 추석 대비 절반, 지난 해 설보다도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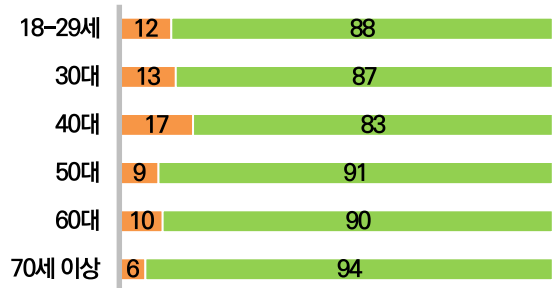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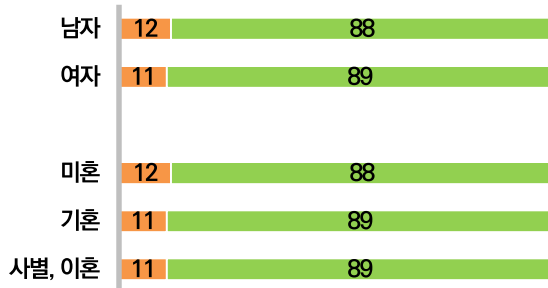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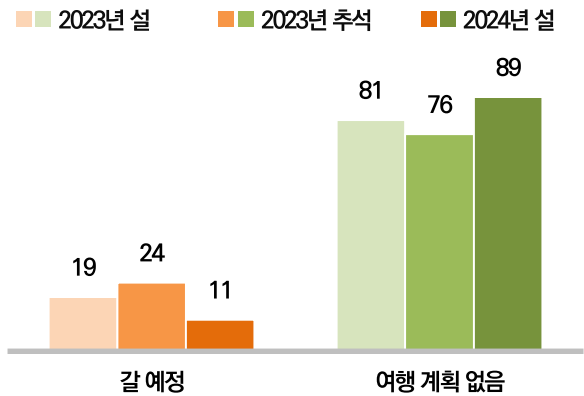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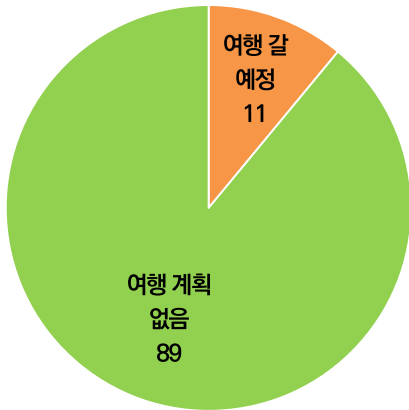
이번 설 연휴에 국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1%이다. 지난 해 설(19%)보다 8%포인트 낮고, 지난 추석(24%)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성별이나, 연령대, 결혼 유무 등과 관계없이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10% 내외 수준에 머문다.

이는 이번 설 연휴가 대체휴일 포함 4일(2월 9일 ~ 12일)로 짧을 뿐만 아니라 금요일 ~ 월요일에 걸쳐 있어, 장기간 휴가를 내기 쉽지 않은 조건인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여행 계획을 하는 사람이 24%로 많았던 지난 추석은 대체공휴일 포함 총 6일간의 연휴가 보장되었다.

#### 이번 설에 국내나 해외여행 계획 있다, 11% 지난 추석 대비 절반, 지난 해 설보다도 낮아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단위 : %)



질문: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19.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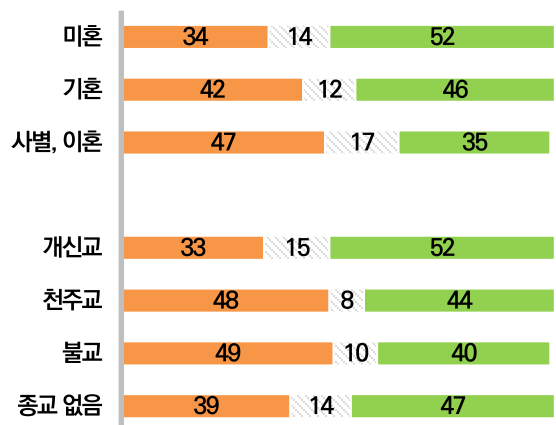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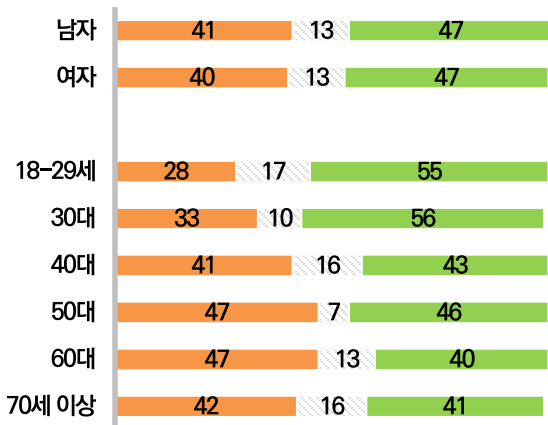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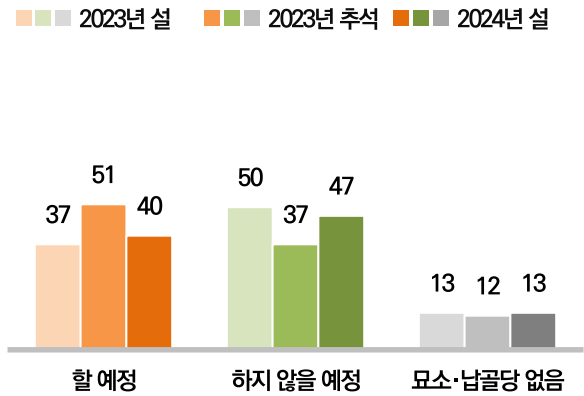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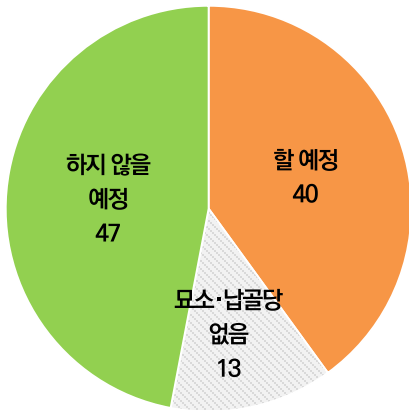
## 설을 전후해 성묘·별초를 하거나 납골당 방문 계획 있다, 40% 지난 해 설과 비슷하고, 지난 추석보다는 11%포인트 낮아

전체 응답자 중 40%가 이번 설에 성묘 및 별초를 하거나, 납골당 등 추모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해 설(37%)과는 비슷하고, 지난 추석보다는 11%포인트가 낮다. 돌아가신 가족 및 조상님을 찾아뵙겠다는 사람은 50대(47%)와 60대(47%)가 높고, 18-29세(28%)와 30대(33%)등 젊은층에서는 낮은 편이다. 또한 천주교 신자(48%)와 불교 신자(49%)는 절반 정도가 이번 설에 성묘·별초를 하거나 추모시설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반면, 개신교 신자 중에서는 33%만이 그럴 계획이라고 답해 차이를 보인다.

### 설을 전후해 성묘·별초를 하거나 납골당 방문 계획 있다, 40% 지난 해 설과 비슷하고, 지난 추석보다는 11%포인트 낮아

성묘·별초를 하거나  
납골당 방문을...

(단위 : %)



질문: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19. ~ 22.

## 이번 설에 차례나 제사 지낸다 40%, 지내지 않는다 60% 지난 해 설, 지난 추석과 비슷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예측한 [4인가족 기준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각각 281,500원(전통시장), 380,580원(대형마트)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8.9%, 5.8% 상승한 역대 최고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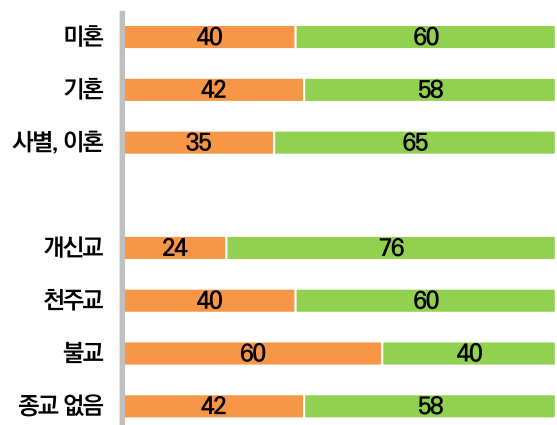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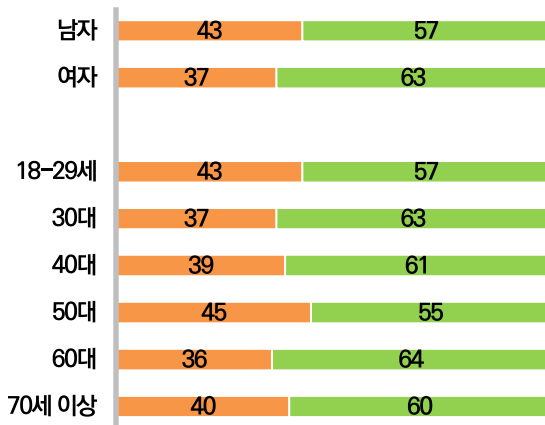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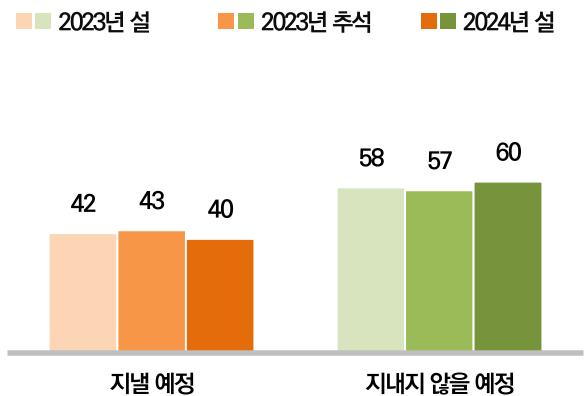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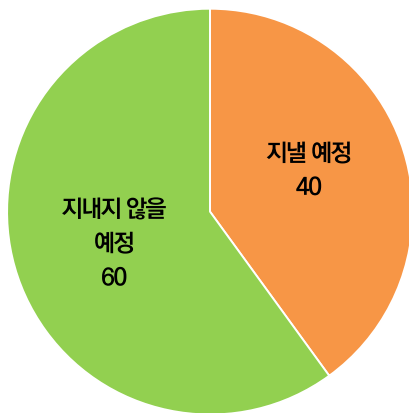
설 차례 부담이 이전보다 가중된 상황에서, 전체 응답자 중 40%가 이번 설 명절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 해 설(42%), 지난 추석(43%)과 비교하면 큰 차이 없이 오차범위 이내 변화이다.

명절에 가족 및 친척이 한데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모습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명절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명절에 친척을 명절에 만난다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 정도이고,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사람보다는 지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명절을 보내는 방식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 이번 설에 차례나 제사 지낸다 40%, 지내지 않는다 60% 지난 해 설, 지난 추석과 비슷

우리 집은 차례나 제사를...

(단위 : %)



질문: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19. ~ 22.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3년 12월 기준 약 89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8,061명, 조사참여 1,326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4%, 참여대비 75.4%)
조사일시	• 2024년 1월 19일 ~ 1월 22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 여輿論論

HankookResearch

